

갤러리현대 11월의 전시

최 우 람 Choe U-Ram

2012. 11. 1. 목 – 30. 금 | 갤러리현대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80 T. 2287-3500)



Custos Cavum, 2011, metallic material, resin, motor, gear, custom CPU board and LED, 220(h)×360(w)×260(d) cm

***Opening Reception** 2012. 11. 1. 목 5 pm

***Artist Talk** 2012. 11. 3. 토 3 pm

전시문의
보도관련문의

갤러리현대 (02-2287-3500)

ID galleryhyundai2 / PW 2287

[갤러리현대] - [11월 전시_최우람]

홍보 마케팅 팀 성은진 팀장 **010-3824-6908** / 02-2287-3546

홍보 마케팅 팀 이현진 **010-2763-9202** / 02-2287-3563

전시 소개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를 만드는 연금술사, 최우람 최초의 드로잉부터 새로운 시도의 신작까지 선보이는 10년만의 국내 개인전

**기계문명에 대한 논의, 신화와 종교의 영역까지 확장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 던지는 새로운 시도**

(2012년 10월 26일) 갤러리현대(대표 조정열)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한국의 대표적 키네틱 아티스트 최우람(b. 1970)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총 8점의 움직이는 조각과 50 여점의 드로잉이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현재 움직이는 조각 작품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어릴 적 드로잉부터 그를 세계적 작가로 알린 기계 생명체 시리즈, 그리고 최초로 공개하는 신작 시리즈까지 최우람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10년만의 국내 개인전이다.

최우람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정교한 움직임’, 그리고 ‘기묘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내러티브’이다. 어릴 적부터 기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녔던 작가는 인간 문명의 산물인 기계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복제, 번식하고 진화해 나가는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모티브로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체의 관절과 심장을 지닌 듯한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마치 실재 존재함을 증명하듯 작가가 만들어낸 학명으로 명명되는 기계 생명체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기계 생명체들은 그 자체의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부여된 흥미로운 탄생설화를 수반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그 기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설득력 있는 해설은 관객들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작가 스스로 뿐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도 ‘이러한 기계 생명체의 세계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사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테크닉과 콘텐츠 두 가지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성과 완성도를 지닌 최우람 작가의 작업은 2006년 상하이 비엔날레와 2008년 리버풀 비엔날레 출품을 비롯하여 일본 모리 미술관, 뉴욕 비트포즈 갤러리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유지엄 개인전 등 세계적으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새로운 시도 : 기계 문명에 대한 논의, 신화와 종교의 영역까지 확장,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 던져

특히 이번 전시가 기대되는 이유는 최우람 작가가 그 동안 다뤄온 기계 생명체에 대한 사유와 상상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혀 보여주지 않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는 것. 이번 신작 시리즈에서 작가는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 생명체의 모습이 아니라 신화 속의 존재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오브제 그 자체의 모습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는 작가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기계문명에 대한 논의를 신화와 종교의 영역까지 폭넓게 확장시키며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려는 시도이다. 즉, 기존 작업에서 등장한 ‘최우람식 기계 생명체’는 기계의 움직임에 대한 매체 실험, 그리고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상상력에 기반했다면 이번 신작은 그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실존 여부에 대해 탐닉하고 사유하는 과정으로의 진일보를 의미한다.

작가와의 대화 11월 3일 토 오후 3시

지금의 세계적 키네틱 아티스트 최우람을 있게 한 대표작 시리즈, 그로부터 새로운 담론으로 나아간 신작,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 근간이 된 드로잉까지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최우람 작품 세계를 총 망라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가 될 예정이다. 11월 3일 오후 3시에는 작가가 직접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되어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품작

Custos Cavum / Unicus-Cavum ad initium

아주 오래 전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두 세계는 작은 구멍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마치 숨쉬는 것처럼 서로 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구멍들은 자꾸만 닫히려는 성질이 있어서, 각각의 구멍 옆에는 늘 구멍을 지키는 수호자가 하나씩 있었다.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이라 불리던 이 수호자는 바다사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커다란 앞니로 구멍을 갉아 구멍을 유지하였다.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 들이 어딘가 새로운 구멍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가고, 죽은 듯 자고 있는 그 들의 몸통에서는 **유니쿠스(Unicus)**라 불리는 날개 달린 흙씨들이 자라 났다. 이 유니쿠스(Unicus)들은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의 몸통에서 떨어져 다른 구멍으로 날아가 새로운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으로 자라나 새로 생겨난 구멍을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세계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점차 사라지면서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들은 힘을 잃어갔고 하나씩 하나씩 죽어갔다. 결국 마지막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마저 죽어가자 마지막 구멍도 닫혀버리고, 두 개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졌다.

어젯밤 나의 작은 마당에 마지막 남은 쿠스토스 카뎀(Custos Cavum)뼈에서 유니쿠스(Unicus)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세상 어딘가에 다른 세상과 통하는 구멍이 다시 열렸을 때 그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 최우람

Custos Cavum (2011)



Custos Cavu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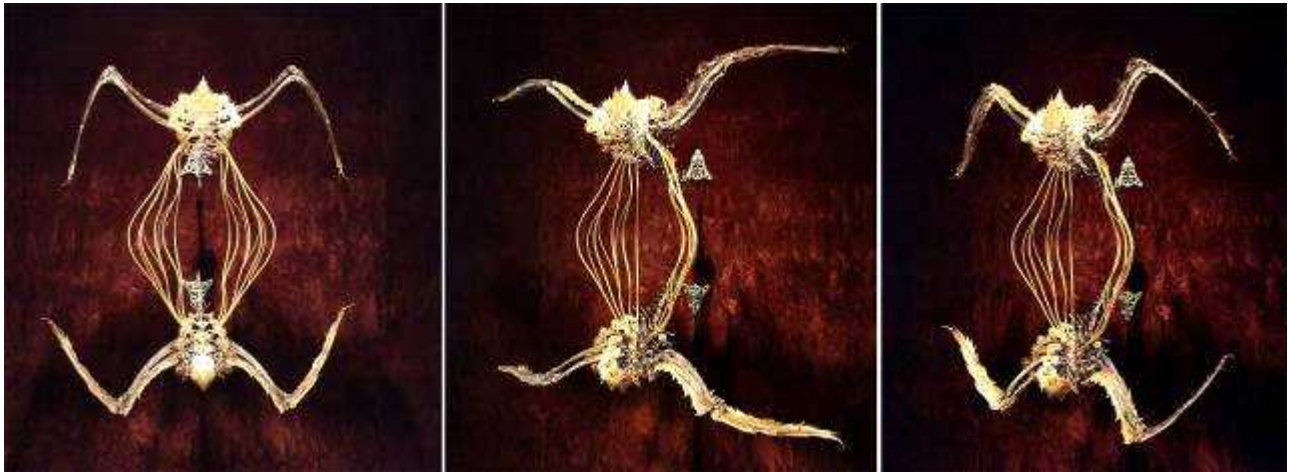
metallic material, resin, motor, gear, custom CPU board and LED

220(h)×360(w)×260(d) cm



Custos Cavum (Detail)

Unicus-Cavum ad initium (2011)



Unicus-Cavum ad initium

2011

metallic material, machinery and electronic devices (CPU board, motor)

90(h)x112(w)x45(d)cm



Unicus-Cavum ad initium (Detail)

Arbor Deus Pennatus (2011)



Arbor Deus Pennatus

2011

iron, stainless steel, aluminum, resin, motor and CPU board

260(h)x350(w)x380(d)cm

Arbor Deus Pennatus 의 원형인 '신의 나무 Arbor Deus'에 대한 신화



*이번 전시에 출품되지 않음

Arbor Deus (Tree of God)

2010

Iron, Stainless steel, Aluminum, Resin, motor, CPU board

350(w) x 260(h) x 380(d)cm. 2010

아주 먼 옛날 지구와 쌍둥이 행성이 태양 너머에 존재했다. 그 행성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었으며, 수많은 자연의 신들과 조화를 이루어 문명이 번성하였다. 어느 날 행성의 공전속도가 느려지며 태양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행성의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고심하던 인간들은 마지막 남은 숲 속으로 들어가 나무의 신, 새의 신, 철의 신에게 행성이 더 이상 태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철의 신이 자신의 머리를 나무의 신 가장 높은 가지에 꽂자, 나무의 신의 몸은 튼튼한 철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의 신이 자신의 자궁을 그 철의 나무 안에 집어 넣자, 가지로부터 철로 된 날개들이 돌아났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들을 잃은 신들은 천천히 죽어가면서 인간에게 말했다. 자신들이 죽고 나면 이 날개 달린 철의 나무는 하루에 세 그루씩 자라나 백 년 후엔 숲을 이룰 것이고, 그 날개 짓의 힘이 지구를 더 이상 태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새의 신의 자궁은 하루에 단 한 바퀴만 회전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너무 빨리 퍼져 숲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날이 오면 서둘러 나무들을 모두 용광로에 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신들의 희생으로 행성에 나무들이 하루에 세 그루씩 새로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철의 나무 숲이 커지기를 기다리던 인간들은 일년이 넘어가자 그 혹독한 추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철의 나무에 있는 신의 자궁을 빨리 돌아가도록 손을 대고 말았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할 자궁을 하루에 열 바퀴가 돌아가도록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자궁이 하루에 수 천 바퀴가 돌아가도록 장치를 만들었다. 숲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고, 그렇게 자라난 나무들은 인간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무서운 속도로 자궁을 돌리고 있었다. 지구는 단 33일 만에 이 날개 달린 나무로 뒤덮였고, 끝없이 펼쳐진 숲의 날개 짓에 지구는 방향을 바꾸어 태양에 가까워 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인간들은 녹아 흘러 내리는 대지의 물소리와 눈부신 햇살에 도취되어 그들의 행위를 자축하는 축제를 열었다.

11일 낮 밤의 축제가 끝나고 아침이 되어 깨어난 인간들은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 빛이 이미 어제의 따뜻함이 아니라 대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강렬한 열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며칠이 되지 않아 모든 강물은 말라버렸고, 저녁이 되어서도 아직 식지 않은 대지의 열기에 인간은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 인간들은 나무를 모두 녹여버려야 한다고 한 신들의 경고를 뒤늦게 기억해 내고, 태양이 기운 저녁에 모두 함께 숲으로 들어가 철의 나무 자궁에 쐐기를 박아 자궁이 돌지 못하게 하고, 닳치는 대로 나무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하루에 수천 그루의 나무들을 녹였지만 새로이 자라나는 나무들의 수를 따라갈 수 없었고, 결국 나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행성의 인간들은 오래지 않아 모두 죽고 번성했던 문명은 사라졌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태양을 향해 다가가던 행성은 태양의 열기로 스스로 나무를 녹이고 우주 공간에 멈춰 섰다.

- 최우람

파빌리온 Pavilion (2012)



파빌리온 Pavilion

2012

mixed media

approx. H 2m

최우람의 신작은 여전히 움직이는 기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더 이상 고유의 최우람 식 생명체의 모습이 아니라 신화 속 존재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오브제 자체의 모습을 표현한다.

작품 <파빌리온>에서 최우람 작가는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파빌리온을 만들었다. 파빌리온의 꼭대기는 작품을 수호하는 듯한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고 내부는 빛을 가득 머금은 채 주위에 빛을 반사시키는 아름다운 미러볼이 천장에 매달려있다. 천상의 성처럼 눈부신 형태를 하고 있는 파빌리온은 전시장 한 가운데 기념비처럼 웅장하게 서 있고 관객은 마치 아름다운 꽃에 나비가 이끌리듯 작품의 화려함에 반해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멀리서 보았을 때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이끌려 마주한 기념비가 소중히 감싸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검정색 비닐 봉지이다. 이는 오랫동안 인간이 신성시하고 경배해온 것들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기도 하고 인간의 맹목적 믿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파빌리온 Pavilion (Detail)

회전목마 Merry-Go-Round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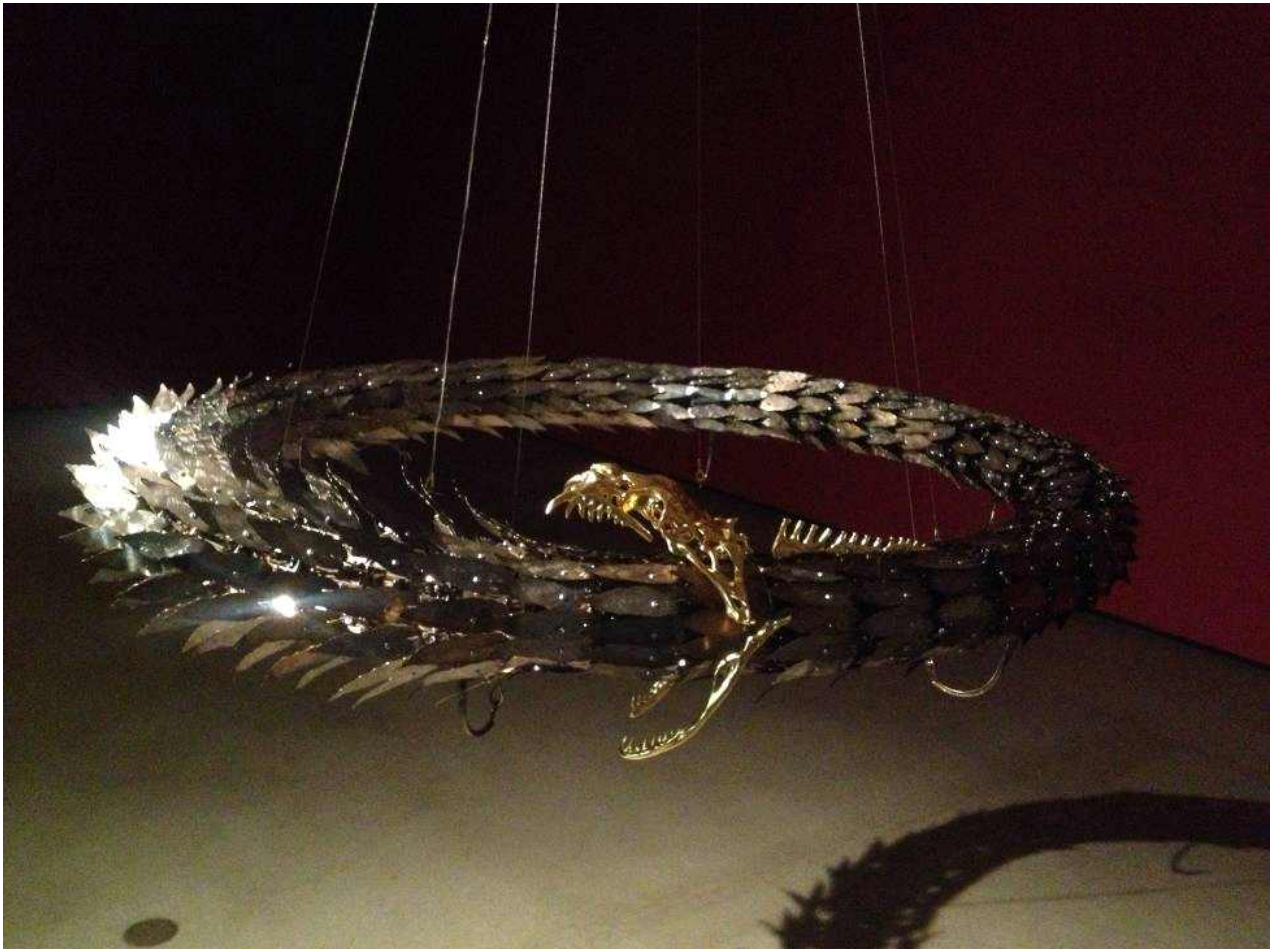


회전목마 Merry-Go-Round (2012)

작품 <회전목마>에서 작가는 등대 위에서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회전목마를 제작했다. 그러나 관람객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배경음악은 제대로 음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회전목마의 회전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져, 아이러니하게도 회전목마에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작가는 이 시대에 숭상되는 모든 것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숭상되는 것들에 접했을 때에도,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혹은 무엇에 이끌렸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허수아비 Scarecrow (2012)**허수아비 Scarecrow (2012)**

최우람 작가는 작품 <허수아비>에서 무려 4 m 에 달하는 거대한 형상을 선보인다. 한가닥 한가닥의 전선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이 형상은 ‘네트워크의 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네트워크를 향한 현대인의 집착과 맹신에 주목한다. 사람이 아닌 데 사람의 형상으로 새들을 미혹하는 허수아비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실체가 없는 네트워크의 세계를 숭상하고 종교화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 하는 작업이다.

우로보로스 Ouroboros (2012)**우로보로스 Ouroboros (2012)**

그리스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를 뜻하는 우로보로스(Ouroboros)는 고대 그리스의 상징으로 커다란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동그라미의 형상을 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 상징은 시작이 곧 끝이라는 의미로 윤회사상 또는 영원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왔다. 우로보로스가 자신의 입(몸의 시작)으로 자신의 꼬리(몸의 끝)를 물고 있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이어진 원이 되어 탄생과 죽음의 결함을 상징한다. 동시에 무한하게 회전을 되풀이 하는 원형이라는 점 때문에 우로보로스에게는 ‘불사’ 또는 ‘무한함’ 등과 같은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탄생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최우람은 작품 <우로보로스>에서 꼬리를 삼키는 뱀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꼬리를 먹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실존을 끝없이 돌고 도는 순환 혹은 윤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시도한다. 작품 <우로보로스>에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조금씩 먹어가는 모습은 오랫동안 기계를 이용한 설치조각을 연구하고 탐구해온 최우람 작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계미학을 보여준다.

작가 약력

최 우 램 (Choe U-Ram)

1970 서울 출생
 1993 중앙대학교 조소과 졸업 (B.F.A)
 1999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졸업 (M.F.A)

대학시절부터 정적인 조각보다는 ‘운동성(movement)’이 있는 ‘기계 형태’의 설치조각 즉, 기계자체와 기계의 유기적 움직임에 미적 가치를 느끼던 최우람은 어느날 “온 세상의 기계들이 생명체화 되어간다”는 영감을 받고 그 인상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작업 형태인 ‘상상의 기계장치 생명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유사(pseudo) 학명’ 형식의 제목으로 명명되며 예컨대 ‘Vegemoretu Pleurotus Ostreatus Uram’과 같은 식이다. 여기서 학명 맨 끝에 작가의 이름인 ‘Uram’을 붙여 마치 서구 식물학이나 천문학 같은 과학 영역에서 대상의 최초 발견자의 이름이 학명에 붙는 관례를 환기하고, 작가 스스로를 ‘준(quasi) 과학자로서의 예술가’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작가는 확장된 형태의 조각을 창작 및 진행 중이다.

최우람의 기계들은 대체로 벌레나 곤충 또는 전기담쟁이, 다이오드 민들레처럼 환경에 본능적으로 적응하는 생명체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등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곤충이나 식물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교만과 폭력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만용과 자만심, 그리고 이기심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가 제시한 기계생명의 포자이거나 바야흐로 자기증식의 단계에 접어든 변종이 멀지 않은 미래에 활거할 것임을 증거하는 단서인지도 모른다.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가망 없는 감상주의는 그의 작품과 무관하다. 기계곤충은 단지 본능만 소유하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적응한다. 그러나 이 기계들이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지니지는 않을 것이며, 생명보존에의 본능에 따라 자신의 적인 인간을 향해 공격을 감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된다. 그의 작품은 섬뜩한 기계곤충의 나라가 결코 예술가의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작가만의 고유한 작품 스타일을 성립한 작품에 있어서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최우람 작가는 2008년 리버풀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재해석한 <Opertus Lunula Umbra> 작품과 함께 리버풀 비엔날레에 참여하였으며, 뉴욕의 비트폼 갤러리, 일본 모리미술관,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도쿄 스카이다비스 사우스, 네슈빌의 프라이스트 비주얼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개인전

2012 Choe U-Ram Solo Show,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U-Ram Choe, John Curtin Gallery. 퍼스. 호주
 2011 In Focus, Asia Society Museum . 뉴욕. 미국
 2010 New Urban Species, Frist Center for the Visual Arts, 네슈빌. 미국
 Kalpa, 비트폼즈 갤러리. 뉴욕. 미국
 2008 Anima Machines, SCAI The Bath House, 도쿄, 일본
 2007 U-Ram Choe, 크로우 컬렉션, 달라스, 미국
 2006 New Active Sculpture, 비트폼즈 갤러리, 뉴욕, 미국
 도시에너지, MAM 프로젝트, 모리미술관, 동경
 2002 Ultima Mudfox, 두아트 갤러리 개관전, 서울, 한국

2001 170개의 박스로봇, 헬로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1998 문명속주, 갤러리보다, 서울, 한국

주요 기획/단체전

2012 Korean Eye 2012,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두산갤러리 서울 재개관전,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Google Zeitgeist 2012, The Grove, 런던, 영국

2011 Korean Eye : Energy and Matter, Museum of Arts and Design, 뉴욕, 미국

The Creators Project; New York 2011, DUMBO, 뉴욕, 미국

Opening Exhibition, Jung-a choi gallery, 서울, 한국

Code Name: Save Joseph Clinic Part2, 요셉의원, 서울, 한국

2010 Made in Popland,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Power House,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향기로운 봄, 엉겅래벙 아트센터, 프랑스

SACA- Soul of Asian Contemporary Art, 학교재 갤러리, 서울, 한국

i-Robot, 소마 미술관, 서울, 한국

사이버네틱스,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한국

2009 신호탄, 국립현대 미술관 기무사 부지, 서울, 한국

가상선,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No longer empty –Transformation, 뉴욕, 미국

D-AiR, 두산 갤러리, 뉴욕, 미국

숨비소리, 제주 도립 미술관 오픈 기념 특별전, 제주 도립 미술관, 제주, 한국

The Garden at 4PM, 가나 아트 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2008 Made up : 리버풀 비엔날레, FACT, 리버풀, 영국

아시아 아트 트리엔날레, 맨체스터 아트갤러리, 맨체스터, 영국

Open Space2008, NTT Intercommunication Center [ICC], 도쿄, 일본

2007 공간의 영혼, 비와코 비엔날레, 오미하치만, 일본

Summer show, 비트폼즈 갤러리, 뉴욕, 미국

2006 6회 상하이비엔날레-하이퍼디자인, 상하이, 중국

서울의 숲 야외조각 심포지엄, 서울의 숲, 서울, 한국

2005 개관전, 비트폼 서울, 서울, 한국

하드코어 머신전, 아트페이스 휴, 서울, 한국

개관전, 치우공예관, 과천, 한국

2004 삼성미술관 Leeum 개관전, Leeum, 서울, 한국

정지와 움직임,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한국

부산 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꿈나비 2004, 서울랜드 특별전시관, 과천, 한국

중국 국제갤러리 박람회, 베이징 박람회장, 베이징, 중국

Offisina Asia, Galleria d'Arte Moderna, 볼로냐, 이탈리아

The Armory Show, Pier 90 & 92, 뉴욕, 미국

2003 예술가는 마법사, 갤러리아트사이드, 서울, 한국

Fake & Fantasy,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국제 디지털 아트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한국

D.U.M.B.O art under the bridge festival, DUMBO, 뉴욕, 미국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이화여대 박물관, 서울, 한국

프린스 & 프린세스,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일렉트릭 파워, 한전 프라자 갤러리, 서울, 한국

- 2002 **Our House**, 신사동 주택, 서울, 한국
 미술로 보는 월드컵,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
 공간, 그 무한한 가능성(공연),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울, 한국
 곤충의 행성, 서호 미술관, 양수리, 한국
 몽환, 몽환, 서울, 한국
New Face 2002, 토탈 야외 미술관, 장흥, 한국
 상상력과 호기심, 인사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01 **Working Degree Zero**, 갤러리보다,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두 극점 읽기, 동덕 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디지털아트 네트워크, 테크노마트, 서울, 한국
 어린이 달,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인공생명,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Net-plant project,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 2000 조각놀이공원,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중앙 조각회, 종로갤러리, 서울, 한국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 갤러리사비나, 서울, 한국
 불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시대의 표현-눈과 손,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예기치 않은 방문-유별난 집, 일민 미술관, 서울, 한국
- 1999 가제트 공화국, 갤러리창고, 일산, 한국
 한국 현대미술 90년대 정황, 엘렌 킴 머피 갤러리, 서울, 한국
 도시와 영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데몬스트레이션 버스,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중앙조각회,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99 아홉 용머리, 청주박물관, 청주, 한국
Blasphemy, 토탈 미술관, 서울, 한국
 미메시스의 정원-생명에 관한 테크놀로지 아트, 일민 미술관, 서울, 한국
- 1998 98 아홉 용머리, 대청호, 청주, 한국
 중앙 조각회, 토탈 야외 미술관, 장흥, 한국
- 1997 가칭 삼백개의 공간, 담갤러리, 서울, 한국
 청년정신-제2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교육홍보관, 광주, 한국
 중앙 조각회, 서남 아트센터, 서울, 한국
 소리- II, 유경 갤러리, 서울, 한국

수상 및 레지던시 경력

- 2009 두산 갤러리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김세중 조각상, 청년 조각 부문 수상, 김세중 기념 사업회, 한국
 2006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순수 미술 부문 수상, 문화 관광부, 한국
 2006 제1회 포스코 스틸 아트 어워드, 대상, 포스코 청암 재단, 한국